기아 EV3, 친환경차 시장 선도 유럽·국내 동반 호조에 '탄력'

유럽 판매 17% 증가 '역대급'
국내 점유율 34%로 1위 탈환
광명공장 풀가동… 수출 총력
'세계 올해의 차' 2년 연속 수상

기아가 올해 1분기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분기 기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사진은 EV3.

기아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에도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아 광명 오토랜드는 EV3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의 1분기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34.2%를 차지하며 1위에 등극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기아 소형 SUV EV3가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내 판매 개시 이후 1만2000대의 판매량을 돌파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5718대 판매고를 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아 EV3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기아는 올해 1분기 유럽에서 2만7761대를 판매하며 이전 최다 판매 기록이었던 2만3794대(2023년 3분기)보다 17% 증가한 실적을 작성했다.

유럽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이런 기세에 힘입어 기아는 올해 1분기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6위 브랜드에 올랐다.

이에 따라 기아는 EV3를 생산하는 광명 오토랜드 생산라인을 풀가동 중이다. 기아 광명 오토랜드 관계자는 "(EV3 등)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라인을 풀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기아 광명 오토랜드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EV3의 유럽 현지 가격은 3만6000(약 5396만 원)유로다. 기아는 EV3를 유럽에서 연간 6만 대 가량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아는 EV3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상식인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기아의 전기 SUV '더 기아 EV3'의 '세계 올해의 차' 수상을 축하하며 임직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회장은 "기아는 지난해 EV9에 이어 올해 EV3까지 2년 연속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며 "기아의 이번 수상은 단순한 영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위대함을 넘어 더 벅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항상 더 나은 품질, 더 진보한 기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자"고 독려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EV3 등) 가성비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젊은층의 전기차 구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차급에 비해 뛰어난 상품성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의 출시로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제네시스 등 '車 업계' 첨단기술 알리기 총력

국내 자동차 업계가 새로운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JLR 코리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고객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브랜드 기술 홍보 영상 '테크놀로지 바이 제네시스(Technology by GENESIS)'를 이날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제네시스의 다양한 기술을 한 편의 영화처럼 소개하며 제네시스 첨단 주행 기술이 제공하는 일상 속 편리함을 강조했다. 영상에 나오는 기술은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후륜 조향 시스템(RWS) ▲3.5T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E-LSD) ▲능동형 소음 제어(ANC-R) ▲스포츠 플러스(스포츠+) 모드 등 제네시스 내연기관 차량에 탑재된 대표 기술 6종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는 편안함과 역동성, 그리고 감성까지 아우르는 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중국 포기 못한 '엔비디아' AI칩 재설계로 돌파구 모색

알리바바·바이트댄스 연쇄 방문
美 수출 규제 피한 칩 샘플 준비
정치권 설득 병행하며 이중 전략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향 공급 물량 재개를 기대하면서도 중국기업의 기술자립 가속화란 상반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디인포메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알리바바, 텐센트,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 주요 테크 기업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황 CEO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 수출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설계중"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로 개발한 AI 반도체 샘플을 중국 고객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최신 고성능 AI 반도체인 '블랙웰'의 중국 전용 버전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해 미국 정부 규제 기준에 맞춘 저사양 AI 반도체 'H20'을 중국 전용으로 설계했지만,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이마저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약 55억 달러(약 7조700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황 CEO는 미국 정치권 설득에도 나섰다. 최근 그를 포함한 엔비디아 경영진은 최근 미국 하원의원들과 만나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젠슨 황의 이번 행보가 엔비디아는 미국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는 동시에, 정치권과 접촉하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이중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젠슨 황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단순한 경영 판단을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전면에 나선 상징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 중 표면적 중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지만,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30%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혜민 기자

포스코홀딩스-LG화학, 탄소저감 기술 개발

'CCU메가프로젝트' 참여

국내 주요 철강·화학 기업인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이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양사는 CCU(이산화탄소·포집·활용) 기술 실증 사업을 통해 산업계 탄소 저감과 지속가능 혁신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사업(CCU메가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다.

양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포항제철소 제철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 이를 활용해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섞인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실증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생산한 합성가스는 지속가능 항공유 등 화학제품의 원료로 외부 판매하거나 제철공정으로 다시 투입해 쇳물을 만들기 위한 철광석의 환원제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수소는 친환경 연료로도 사용 가능해 실증 사업을 통해 기술이 상업화되면 활용도가 한층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스코홀딩스는 미래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텍과 협력해 제철소 부지 및 부생가스를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메탄을 합성 등 제철공정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또한 LG화학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일산화탄소 및 수소로 전환하는 메탄건식개질(DRM) 기술 실증을 담당한다. LG화학은 지난 2023년 충남 대산에 1000톤 규모의 DRM 파일럿 공장을 구축해 독자기술로 개발된 공정과 촉매 기술을 검증 및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CTO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은 "LG화학과 포스코그룹이 협력하는 CCU메가프로젝트 컨소시엄은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양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갤S25, 북미 재활용 디자인 어워드 수상

삼성전자, 친환경 설계로 호평

갤럭시 S25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7일 '갤럭시 S25'가 북미 재활용산업협회(ReMA)가 수여하는 '2025 재활용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재활용 디자인 어워드는 2006년부터 북미 재활용산업협회가 수여하고 있는 재활용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재활용 소재 적용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 최소화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제품에 수여된다.

이번 수상은 갤럭시 S25가 제품 설계부터 생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재활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갤럭시 S25는 기존 스마트폰에서 회수한 폐배터리에서 코발트를 추출해 다시 활용한 '배터리 재활용 순환 체계'를 적용했다. 알루미늄, 철, 희토류 등 총 8종의 재활용 소재가 제품에 사용됐으며, 프레임에는 재활용 아머 알루미늄이 적용돼 갤럭시 시리즈 최초로 전체 외장 부품에 재활용 소재가 들어갔다. 포장 상자 역시 100% 재활용 종이로 제작됐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SDI, 고출력 UPS·안전기술 선배

'더 스마터 E 유럽' 어워드 위너 선정

삼성SDI가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 '더 스마터 E 유럽 2025'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어워드 위너로 선정됐다.

삼성SDI는 고출력 UPS(무정전전원장치)용 신제품 'U8A1'과 열전파 차단 안전성 기술인 'No TP'가 '더 스마터 E 어워드 2025'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더 스마터 E 어워드'는 매년 전시회를 앞두고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에너지저장 ▲E-모빌리티 ▲태양광 ▲스마트 에너지 ▲우수 프로젝트' 등 총 5개 부문에서 최고의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총 14개 제품 제품·기술이 최종 선정됐는데 삼성SDI는 이번 '더 스마터 E 유럽 2025'에 참가한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가한 전세계 모든 업체들 가운데 복수 수상한 것은 삼성SDI가 유일하다.

'에너지저장' 부문 수상작 U8A1은 삼성SDI가 독자 개발한 신규 고출력 UPS용 배터리 제품이다. 데이터센터 등의 시설에 정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긴급으로 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 급증 시 하락하는 전력 품질을 안정화시키는 기능도 추가됐다.

/차현정 기자